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특성 분석

조달호 연구위원 · dhcho@sdi.re.kr

이춘화 연구원 · lch128@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 생생리포트에서는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여성 취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15세 이상 인구 :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취업자 :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1. 서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좁혀지는 추세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

- 2009년 현재, 서울 여성 15세 이상 인구가 429만 명으로 남성 405만 명에 비해 많은 수준이지만 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213만 명으로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291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남
- 서울의 2009년 현재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3%이고, 남성이 71.7%, 여성이 48.0%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고용률의 경우, 여성이 48.0%인 반면, 남성은 68.7%로 나타나서 성별 고용률에도 큰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함
- 성별 경제활동 인구 지표들을 살펴보면 전국도 서울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서울과 전국의 성별 경제활동 인구(2009년)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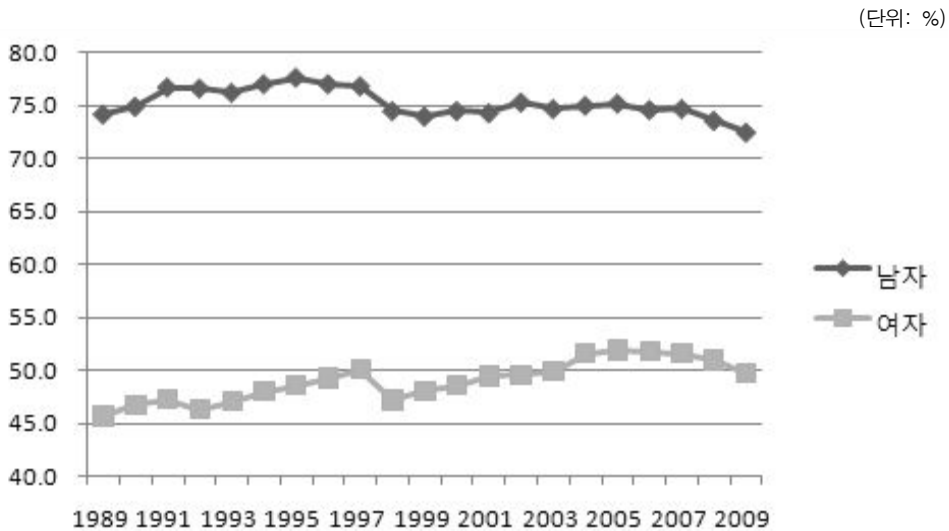
구분	성별	15세이상 인구 (천명)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비경제 활동인구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서울	합계	8,338	5,032	4,840	192	3,306	60.3	58.0	3.8
	남성	4,050	2,905	2,782	123	1,145	71.7	68.7	4.2
	여성	4,289	2,127	2,059	69	2,161	49.6	48.0	3.2
전국	합계	40,236	24,655	23,856	799	15,581	61.3	59.3	3.2
	남성	19,667	14,380	13,857	523	5,287	73.1	70.5	3.6
	여성	20,570	10,275	9,999	276	10,294	50.0	48.6	2.7
서울/전국 비중	합계	20.7	20.4	20.3	24.0	21.2	-	-	-
	남성	20.6	20.2	20.1	23.5	21.7	-	-	-
	여성	20.9	20.7	20.6	25.0	21.0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 서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좁혀지는 추세

- 서울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성과 남성 모두 크게 떨어졌고 그 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2009년 다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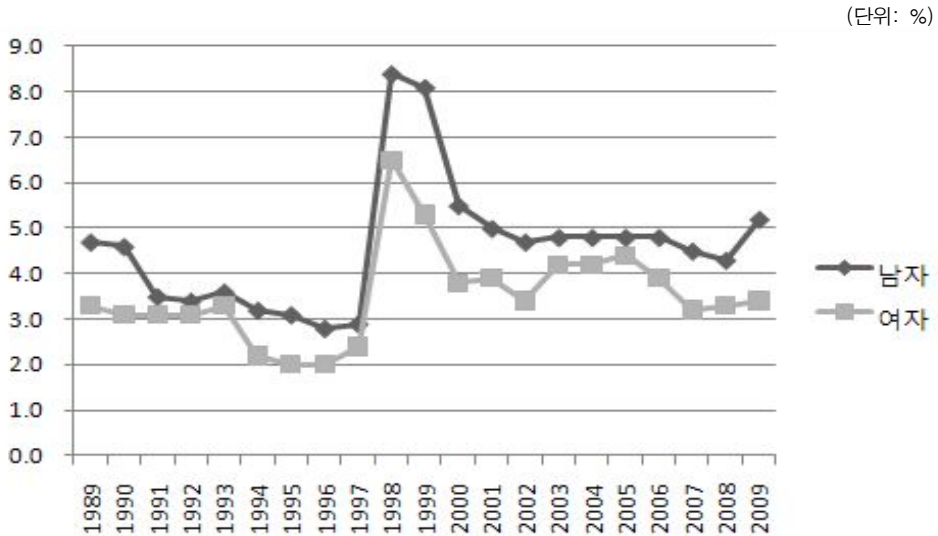
- 1989년에 비해 2009년에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하락한 반면, 여성은 늘어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2009년 현재는 1989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음



[그림 1] 서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성별 실업률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

- 서울의 성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실업률 모두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남성 실업률이 여성보다 항상 높게 나타남
- 역시 IMF 위기와 글로벌 경제 위기시기에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성 실업률은 위기 시 여성 실업률보다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 격차는 특히, 경제위기를 겪는 시기인 1998년과 2009년에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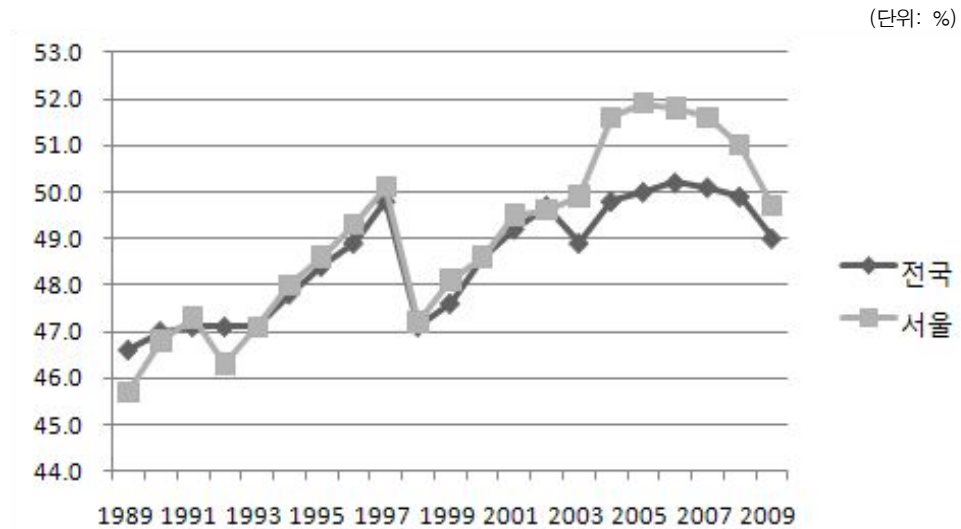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성별 실업률 추이

II. 서울의 여성은 전국 평균보다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 참여하고, 고용률도 높은 수준

○ 서울의 여성 전국 평균보다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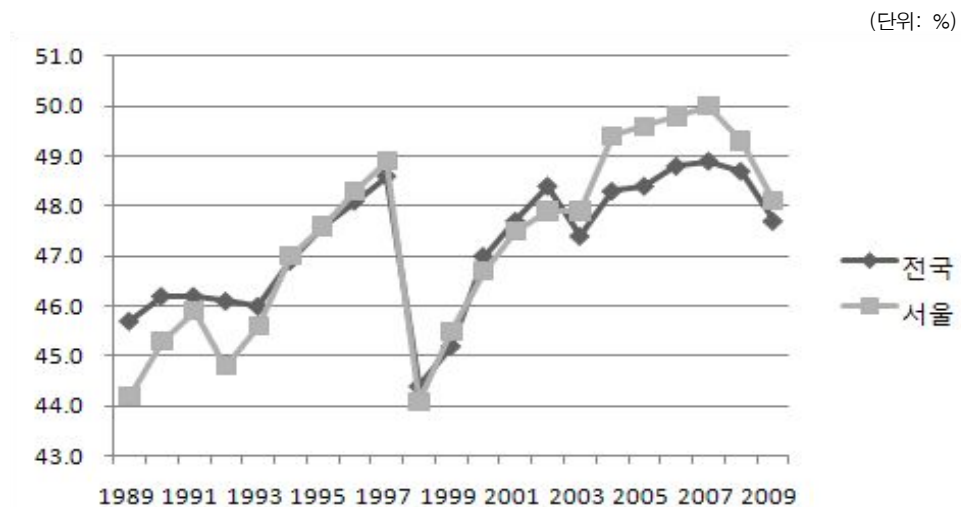
- 서울과 전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역시 IMF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시기에는 크게 떨어지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1993년 이전에는 서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서울의 여성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함을 보여줌



[그림 3] 서울과 전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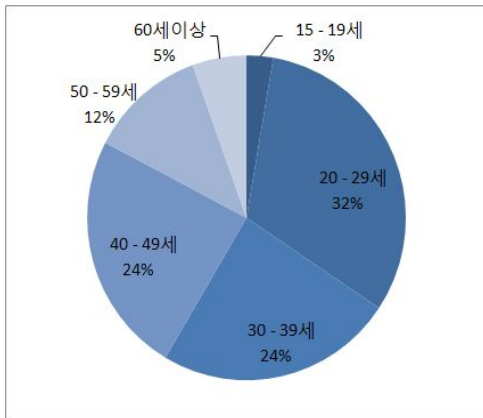
○ 서울의 여성 고용률 전국보다 높은 수준

- 서울과 전국의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1993년 이전까지는 서울의 여성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서울의 여성 고용률이 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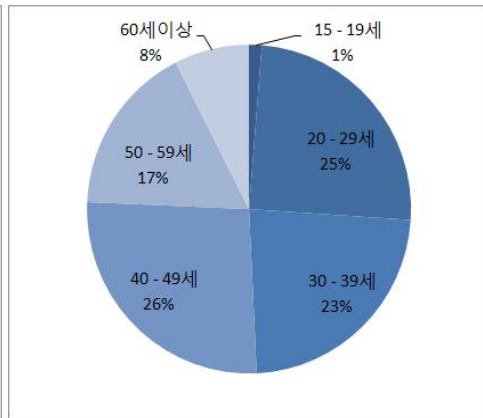


[그림 4] 서울과 전국의 여성 고용률

- 지난 10년간 서울의 여성 취업자 비중은 30대 이하는 감소, 40대 이상은 크게 증가
 - 서울의 2000년과 2009년의 취업자 비중을 각각 살펴보면 10대, 20대, 30대는 취업자 비중이 2009년이 2000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으나, 40대, 50대,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09년이 2000년에 비해서 늘어났음. 40대 이상의 높은 연령대의 취업자 비중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남
 - 특히 20대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의 32%에서 2009년의 25%로 줄었고, 50대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의 12%로부터 2009년의 17%로 늘어나서 큰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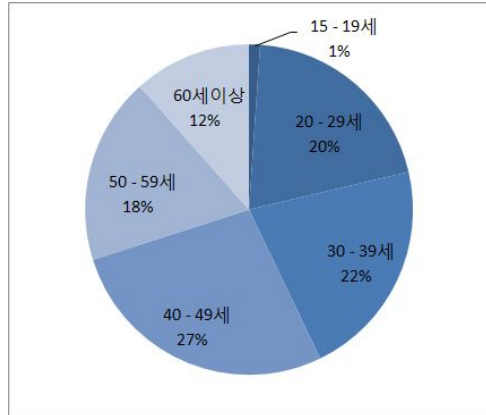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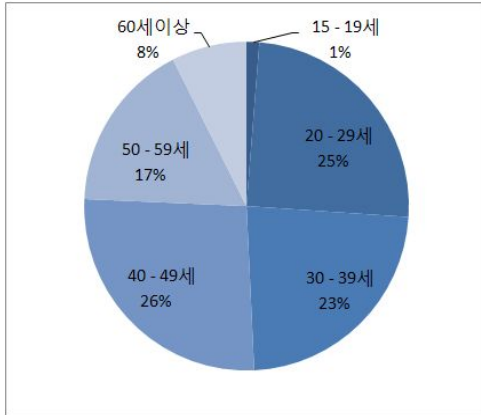


[그림 5] 2000년 서울의 연령별 여성 취업자 비중



[그림 6] 2009년 서울의 연령별 여성 취업자 비중

- 서울의 20대 여성 취업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60세 이상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
 - 서울의 여성 취업자 비중을 전국과 비교할 경우, 30대, 40대, 50대 취업자 비중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큰 차이를 보임
 - 20대 서울 여성 비중은 서울이 25%이지만 전국은 20%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서울이 8%, 전국이 12%로 나타나 20대 서울 여성의 취업이 활발하고 60대 이상의 취업이 저조함을 나타냄
 - 서울의 여성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취업한다는 것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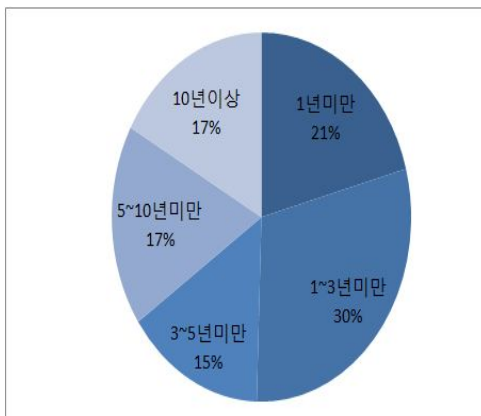


[그림 7] 2009년 서울의 연령별 여성 취업자 비중 [그림 8] 2009년 전국의 연령별 여성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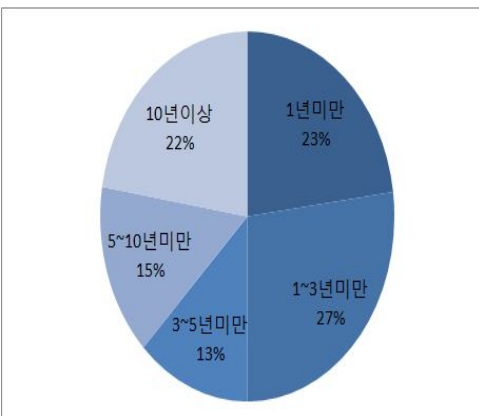
Ⅲ. 서울의 여성 근속기간 전국보다 짧고, 임금근로자와 고학력 여성 많아

○ 서울의 여성 근속기간은 대체적으로 전국보다 짧음

- 서울의 여성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1~3년 미만은 서울이 30%로 전국의 27%보다 높았고, 10년 이상 근속기간을 가진 여성은 서울이 17%로 전국의 22%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서 서울의 여성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 근속기간이 짧은 것을 확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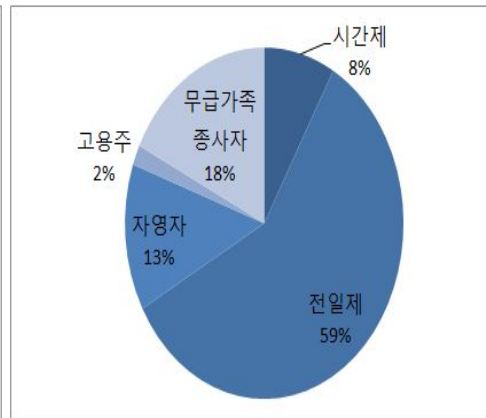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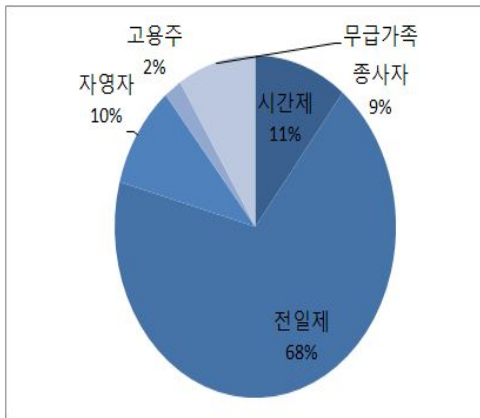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여성 근속기간(2007년)



[그림 10] 전국의 여성 근속기간(2007년)

○ 서울의 여성 전국 평균보다 임금근로자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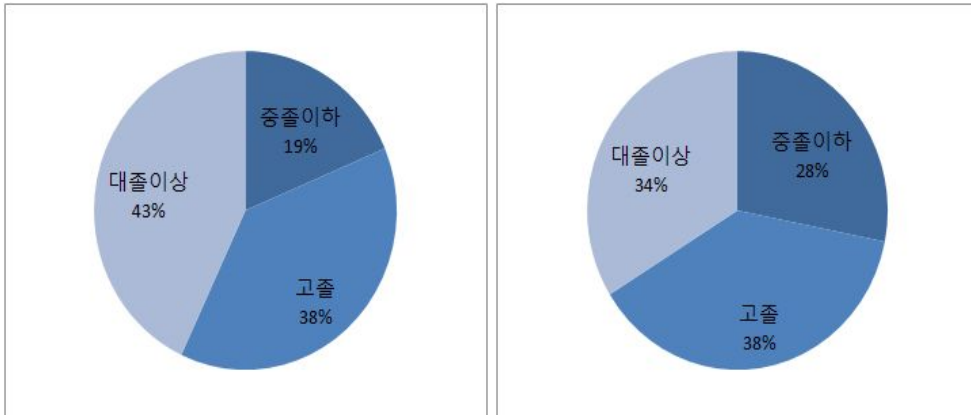
- 서울과 전국의 여성 종사자 지위별 고용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일제가 68%로 전국의 59%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도 11%로 전국의 8%보다 높은 수준임. 서울은 임금근로자가 전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국은 서울보다 비 임금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자가 13%로 서울의 10% 보다 높은 수준,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는 18%로 서울 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서울의 여성 종사자 지위별 고용(2007년) [그림 12] 전국의 여성 종사자 지위별 고용(2007년)

○ 서울에는 고학력 여성 취업자가 전국보다 많은 수준

- 서울과 전국의 학력별 여성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비중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은 대졸이상이 많고 전국은 중졸이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여성 취업자 중에서 대졸이상이 43%로 전국의 3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중졸이하하는 19%로 전국의 2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서울 여성 취업자들의 학력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3] 서울의 학력별 여성 취업자 비중(2009년) [그림 14] 전국의 학력별 여성 취업자 비중(2009년)

Ⅳ. 서울의 여성 국제 및 외국기관과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많아

○ 서울 여성은 국제 및 외국기관과 사업서비스업 취업자가 많음

- 2005년 부정기조사 서울의 여성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서 서울의 여성은 전국 여성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개별 산업의 서울/전국 비중이 21%보다 높으면 그 산업의 서울 여성 취업자가 많다는 것을 설명하고 21%보다 낮은 경우에는 서울의 여성들이 그 산업에 상대적으로 취업을 적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서울이 전국의 51%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 서울의 여성들이 이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업 서비스업 서울의 비중이 41.6%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은 산업으로 확인되었음
- 다음은 가사 서비스업 비중이 35%로 서울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산업으로 나타났고 운수업도 32%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금융 및 보험업(29.9%), 통신업(29.7%), 부동산 및 임대업(29.6%) 등 산업도 서울의 여성 취업자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어업(0.3%), 농업 및 임업(0.4%), 광업(3.5%) 등 산업은 서울의 여성들이 거의 취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 이런 산업 직종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반영함

〈표 2〉 서울의 여성 산업별 취업자 비중

(단위: 명, %)

구분	산업(계)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울	1,550,065	3,783	88	85	202,069	3,010	29,116
전국	7,375,387	973,611	33,067	2,419	1,083,932	12,788	120,449
서울/전국 비중	21.0	0.4	0.3	3.5	18.6	23.5	24.2
구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서울	311,653	204,080	29,736	17,124	90,331	36,457	139,694
전국	1,229,053	962,543	93,051	57,607	301,837	123,226	335,987
서울/전국 비중	25.4	21.2	32.0	29.7	29.9	29.6	41.6
구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서울	38,164	183,673	112,050	41,349	76,367	17,642	1,306
전국	179,718	813,826	496,403	148,084	333,353	50,476	2,563
서울/전국 비중	21.2	22.6	22.6	27.9	22.9	35.0	51.0

○ 서울 여성은 기능원, 사무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가 많음

- 2005년 부정기조사 서울의 여성 직업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직업 중에서 서울의 여성은 전국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로서 29.2%를 차지하고 다음은 사무 종사자로 2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문가 27.6%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도 2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직업은 농업, 임업 및 숙련 종사자로서 0.4%, 다음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6.0%로 낮게 나타났음
- 서울의 여성들은 비교적 전문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편이고 고학력 취업자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3〉 서울의 여성 직업별 취업자 비중

(단위: 명, %)

구분	직업(계)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서울	1,550,065	18,563	259,483	150,373	383,447	250,924
전국	7,375,387	73,887	939,704	545,659	1,344,966	1,177,977
서울/전국 비중	21.0	25.1	27.6	27.6	28.5	21.3
구분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및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기타
서울	248,370	3,530	92,322	26,948	107,172	315
전국	1,029,321	977,304	316,122	451,200	498,827	2,094
서울/전국 비중	24.1	0.4	29.2	6.0	21.5	15.0

V. 요약 및 결론

- 서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좁혀지는 추세
 - 서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격차는 점점 좁혀지는 추세
 - 서울의 성별 실업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고 서울의 여성 고용률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
- 서울의 여성들은 전국 평균보다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젊은 나이에 취업
 - 서울의 여성들은 현재 1990년대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
 - 서울의 20대 여성 취업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60세 이상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 서울의 여성들이 전국 평균보다 젊은 나이에 취업함을 나타냄
- 서울의 여성들은 전국 평균보다 근속기간이 짧고, 임금근로자와 고학력 여성이 다수
 - 서울의 여성들은 1년 미만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근속기간이 짧으며 10년 이상 근속기간을 가진 여성들이 전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음
 - 서울의 여성들은 전국 평균보다 임금근로자가 많으며 전국은 비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
 -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 취업자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수준이며, 이는 임금근로자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
- 서울의 여성들은 국제 및 외국기관에서 활약, 기능원 및 사무직, 전문직 종사자가 다수
 - 서울의 여성들은 국제 및 외국기관과 사업서비스업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으며 어업, 농업 및 임업, 광업 등은 기피하는 산업으로 확인됨
 - 서울 여성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로 근무하는 비중이 높으며 고학력 여성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문직 비중이 높게 나타남